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흰지팡이의 날'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3일 광주 북구 무등산생태탐방원 야외광장에서 '제45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가을이 익다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회원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식전공연, 2부 기념식, 3부 가을 놀이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 회원, 봉사자 등 표창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다양한 게임과 노래자랑 등 놀이마당과 부대행사가 펼쳐졌고 시각장애인 사진전,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나눔 장터, 경품행사 등도 진행됐다. 윤준명 기자

광주도시공사, 장흥군 풍수해 복구지원

광주도시공사는 장흥군청과 협력해 2024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를 복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사진)

2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복구 지원은 지난 9월21일 장흥군에 내린 시간당 70㎜ 이상(일강수량 231.7㎜)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2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진행됐다.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복구 활동에서는 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집기류 정리, 이불 및 세제 등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피해 가구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도왔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은 지역 상생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전남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선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기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자원 재순환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의류, 도서 등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 광주첨단점에 전달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물품 기부 활동은 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적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교통공사,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광주교통공사는 24일 서구 상무역에서 아름다운가게광주목포본부, 전남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상생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의류, 도서, 소형가전, 잡화 등의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는 한편, 도시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부된 물품은 가공·재활용 과정을 거쳐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하며, 의류 등 일부 품목은 인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농기원, 디지털 농업서비스 개발 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씨에스, ㈜화산엔지니어링, ㈜팜커넥트, ㈜이미지랩 등 5개 기관과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농업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협약기관 간 농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온실 환경 제어 △이미지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공동으로 개발해 신속하게 보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농업 영상계측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진행, 전남 지역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2024 법제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남도는 법제 업무 담당자의 차치입법체계 역량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25일까지 이틀간 여수 JCS호텔에서 2024 법제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사진)

전남도가 주관, 법제처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도, 시군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정 현안 법령 이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실무, 법령 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소청심사 실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과제 개요와 사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습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입법 형식과 체계에 맞춰 조문을 작성하는 실제 사례를 직접 경험해 법령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교육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사례 및 실무 중심의 교육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만큼, 이번 교육 역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입법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강사진은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과 법규 운용 역량을 높이는 등 민생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은 내년에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자치법규 해석과 입안 능력을 높일 기회"라며 "법제처의 전문 강의와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청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남구 아이뜰어린이집, 마켓 수익금 기탁

광주 남구는 '남구 구립 아이뜰어린이집(원장 최경화)'이 최근 제3회 2024 진월동민 한마음축제장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켓을 열어 수익금 21만2000원을 진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문희)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이 행사를 통해 유아들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파는 놀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화 구립 아이뜰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희 진월동장은 "뜻깊은 나눔을 전해주신 구립 아이뜰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초록우산 광주본부, 협력기관 간담회 성료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협력기관 간담회 '뽀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사진)

'가까이 하다'라는 뜻의 서남방언인 '뽀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구청, 학교 등 30여 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7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후원금 지원현황, 기본생활지침 변경, 중점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추천 등에 대해 안내하며 논의를 가졌고, 자기소개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한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 협력기관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시교육청 감사장 수상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감사장은 공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의로 학교 여건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여됐다.

특히 공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제기하고, 9개 구역의 통학로 확보 및 정비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제 발굴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철 기자